

일과 가정 간의 균형, 그리고 마흔에 이루고 싶은 꿈

누군가 내게 “당신에게 번역은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괴로움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쉽게 “즐거움이죠”라고 답할 것이다. 내게 번역은 내적인 즐거움 못지않게 외적인 즐거움을 주는 일이다. 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적인 즐거움보다 외적인 즐거움이 큰 일이다. 그리고 내가 번역 세계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 외적인 즐거움 때문이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번역의 길로 접어든 것은 5년 전의 일이다. 당시 나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보통의 기혼 직장여성처럼 ‘슈퍼우먼’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었고 집에서도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이고 싶었다. 딜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은행에 입사한 나는 영어시험에서 1급을 땀과 미국공인 선물거래중개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꿈이 있었기에 일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리고 퇴근해서는 엄마 노릇,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도 부지런히 했다. 나는 은행과 집을 정신없이 오갔다.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나의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면 나의 상황은 최악이 되었다. 나는 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지면이 부족하여 탈출구로 번역을 택하게 된 과정까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번역에서 탈출구를 찾았다. 번역 일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보다 균형 잡힌 생활이 가능했다. 뭉가에 쫓기듯 항상 종종걸음을 칠 필요도 없었고 아이가 아파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한마디로 번역은 내게 일과 가정 간에 균형을 찾아준 탈출구였다. 이렇게 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번역이 갖고 있는 외적인 장점 때문에 5년 전 번역의 길로 접어들었다.

번역의 길이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다. 하지만 번역의 외적

인 즐거움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번역에서 내적인 즐거움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었다. 경제·경영 분야도 굉장히 넓다보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즐거움이 되었다. 즉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나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생소한 분야의 책을 번역할 때보다 몇 배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그런 책임수록 번역하고 나면 남는 것이 많았다.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소중한 것처럼 힘들여 번역한 책임수록 애정이 많이 갖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한번은 《The New Rules of Money》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다.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해 미국의 조세제도를 공부해야 했다. 우리와는 제도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 원서만 보고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책을 번역하는데 거의 3개월이 걸렸다. 번역가의 입장에서 그 책은 ‘손해 막심한 장사’였다. 하지만 번역하고 난 뒤 굉장히 뿌듯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편역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넘은 생각까지 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힘들게 번역했지만 우리나라 실정과 너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아직까

◎ 이 글을 쓴 정준희는 1972년 서울에서 출생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우리은행을 거쳐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비쁜 여자 신드롬》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비즈니스 정글, 허브》 《How to Become CEO》 《툼 피터스》 《실리콘밸리 스토리》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정보》 《떠오르는 트렌드, 사라지는 트렌드》 《라이코스, 속도가 생명이다》 등이 있다.



지 출간되지 않고 있다).

둘째는 실생활의 적용이다. 특히 자기계발서의 경우 번역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가운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나는 종종 번역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번역을 하면서 책에 제시되어 있는 제안들을 행동으로 옮겨보곤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번역하고 있는 《The Six-Figure Women》은 역대 고소득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그들과 같이 고소득을 올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책에는 전략 1부터 전략 7까지 고소득을 올릴 단계별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략 1은 '의지의 표명'이다. 한 해 동안 얼마의 소득을 올릴 것인지 포스트잇에 적어 컴퓨터 스크린에 붙여 놓을 것을 제시한다. 나는 그 제안대로 내년 한 해 나의 목표 소득을 포스트잇에 적어 컴퓨터 스크린에 붙여 놓았다. 번역하면서 이렇게 책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라하면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서둘러 번역을 하게 될 뿐 아니라, 보다 재미있게 번역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셋째는 새로운 사람들, 특히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우선 여러 출판사들과 거래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물론 그들은 일 외에는 전화 한 통 하는 일이 없는, 비즈니스 관계가 전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는 마음

이 맞아 빈번히 교류하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또 일부는 자주 연락하지는 못하지만 비 오는 날 혹은 기분 꿀꿀한 날 불러내어 차 한 잔, 혹은 맥주 한 잔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다. 또한 번역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정말 번역가가 되고 싶어 열심히 번역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취직할 때 경력 한 줄 더 쓰기 위해 혹은 자격증 하나 더 적기 위해 번역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쨌든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이처럼 번역은 내게 외적으로도, 그리고 내적으로도 커다란 즐거움이 되고 있다. 물론 번역이라는 일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번역하는 이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즐거움 못지않게 괴로움도 많은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이 내게는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이 많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이 일은 내게 더욱더 즐거움이 많은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의 길 끝에 나의 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뒤에, 그러니까 내 나이 마흔 즈음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쑥스러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 나이 마흔 즈음에 이루고 싶은 꿈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향후에도 내 삶에 분명 커다란 즐거움이 되어 줄 것이다. **한글**